



다민족기도회를 마친 후, 이 기도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 다민족 기도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미국의 다민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참회하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 개혁할 것을 각오했다. 10월 29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2017년 다민족기도회에는 한인,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안, 라티노, 흑인, 백인 등 다양한 인종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도 눈에 띄었다.

크루와 엘림교회 연합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회에서는 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환영인사를 전한 후 남가주장로성가단이 찬양하고 라티노교회인 엘림교회의 네토 푸엔테스 목사와 JAMA 설립자인 김춘근 교수가 각각 메시지를 전했다.

특송으로는 소프라노 지경 집사가 갓 블레스 아메리카를 불렀다. 기도회는 회개, 부흥과 회복, 미국과 국가 지도자, 차세대와 선교, 어려움 속에 있는 도시와 나라 등 5가지 주제 아래 진행됐다. 종교개혁이 가톨릭 교회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며 돌이킬 것은 촉구하면서 촉발된 것이니만큼 여러 주제 중 '회개'가 가장 비중있게 다뤄졌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 하나님을 배반한 죄, 교회가 성령충만하지 못한 죄, 미국이 말씀을 떠난 죄 등을 회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회개해야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데에 뜻이

모아졌다. 이어 부흥과 회복에서는 가정의 회복, 교육과 문화의 회복, 낙태 반대 등을 놓고 기도했다. 낙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모럴 아웃크라이(The Moral Outcry)의 앨런 파커 변호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또 미국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에서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위해 기도했고 차세대와 선교를 위한 기도에서는 캠퍼스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집트 출신의 가토 다우드 선교사가 특별히 중동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릴 기도해 의미가 컸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는 한국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북한, 최근 자연재해를 입은 도시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 기도회를 마친 후 김경일 목사가 광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축도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함께 부름으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이번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참회 실천 선언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발표한 것이다. 선언문이 낭독된 후 모든 목회자들이 강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선언문에 지적된 죄가 목회자들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회개기도했다. 주최측은 "그동안 남가주 교회는 평신도는 물론이고 목회자들이 비윤리 도덕적 문제로 교계를 넘어 교민 사회의 조롱과 지탄의 대

상이 되어 왔다. 이에 종교개혁 50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종교개혁의 참뜻을 살리고, 특히 성경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실천 운동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종교개혁 500주년 참회 실천 선언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최측은 "전체 참석 인원은 과거 행사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다민족 참여율은 최대였다"면서 "전체 참석자 가운데 약 350명이 타인종, 다민족이었으며 이번 기도회 참석 후 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매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행사에서는 다민족들을 배려해 찬양을 영어, 한국어, 스페니쉬로 번갈아가며 불렀고 기도인도자들도 다민족들을 다수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크,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 (562) 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LA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 위치: GATEWAY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게이트웨이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 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S.EDU
 FOR MORE INFORMATION VISIT : WWW.GS.EDU



참회 실천 선언문을 한국어는 김경일 목사(사진 가운데 오른쪽)가, 영어는 김향신 목사(왼쪽)가 낭독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주최한 예방 교육에 참여한 목회자 사모들.

종교개혁 500주년 참회 실천 선언문

10월 29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다민족기도회에서 발표

남가주 교회는 지난 10월 29일 은 헤한인교회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다민족기도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참회 실천 선언문>을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한국어로 된 선언문 전문을 게재한다.

종교개혁 500주년 참회 실천 선언문

우리는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을 세우셨고 신앙적 축복과 함께 이 나라에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을 주셨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미국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남가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의 신망과 존경을 받지 못함으로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고, 차세대는 기성 세대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전념하지 못함을 깊이 반성한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성경적 가치관과 청교도 정신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를 선도하던 기독교 종주국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고 반 성경적 배도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탄식한다. 우리는 이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 만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지침임을 믿기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한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

일한 구원의 길이고 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심을 믿기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3.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선언하며 지켰던 5대 솔라(Five Solas)를 중요한 핵심 교리로 삼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1) 오직 성경(Sola Scriptura)
- 2)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 3) 오직 믿음(Sola Fide)
- 4) 오직 은혜(Sola Gratia)
- 5)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4.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5. 우리는 차세대 신앙 인물 육성이 미래의 희망임을 알고 차세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며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차세대 양육에 힘쓰는 교회학교와 단체들을 지원,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6.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행동(분열, 교회가 사회 법정에 고소 고발, 윤리 도덕적 타락, 재정의 투명성 결여 등)을 참회하고 성경적 가르침대로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7. 우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알아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이웃(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중독자 등)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실

천할 것을 선언한다.

8.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모든 공 예배와 정기모임, 그리고 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목회자를 존경하고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9.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정직과 순결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증인 된 자의 삶을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0. 우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이 낙태 자유법을 제정한 이래 약 6천만 명 이상의 태아가 모태에서 살해되었음을 애痛하며 낙태법 개정을 위한 각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김과 성경적 가정 제도 회복을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1. 우리는 청교도 정신을 상실한 기독교 종주국인 미국이 다시 강력한 성경적 부흥을 체험하고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12.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의 붕괴로 말미암아 교회가 급속히 세속화되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등에 물들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은 모두 목회자의 책임임을 통감한다. 이에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참회하며, 위 11가지 선언들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2017년 10월 29일
종교개혁 500주년 대회
준비위원회 및 참가자 일동

가정폭력 어떻게 예방하죠? 어떻게 피해자 돕나요?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이해 한인 목회자 사모 10여 명을 초청해 26일, 27일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인가정상담소와 같은 에이전시를 찾아오기 전에 종교계 관계자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한인가정상담소는 6년 전부터 한인 목회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동안 수련회 형식으로 열린 이번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의 정의와 패턴, 아동학대와 데이 트 폭력 등에 대해 배웠고 한인사회 내의 가정폭력 실태에 공감하는 한편,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토론했다. 이들은 한인가정상담소와 협력해 앞으로 건강한 한인사회와 가정을 만들어 가는 일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 종교계와 협력하여, 한인사회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예배에 참석한 이들

ROTC기독교장교연합회 LA지회 창립

미주기독교방송(대표 남철우 목사)은 대한민국 ROTC기독교장교연합회(회장 박영식) 회장단 및 임원 21명을 초청했다.

지난 28일 지역 내 교계 및 군선교회 관계자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동 단체의 LA 지회 창립예배를 드렸고 방문 기간 중 총현선교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남가주명성교회에서 한국 군선교회에 대한 보고회도 가졌다.

LA지회는 지회장에 남철우 목사, 지도목사에 이병일 목사로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미주기독교방송에서 기도 모임을 열고 있다. 문의) 213-383-6800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

한샘교회 창립 감사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한샘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시작되어 1911 Wilshire Blvd 에 새 예배당을 준비하고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립준비위원 김병호, 김정일 배상



일시 2017년 11월 5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한샘교회 예배당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은혜의 샘, 생수의 강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el. 213.505.3838 E-mail : yes9389@hotmail.com



담임목사 이순환



창대교회 헌당예배를 마친 후, 식순을 맡은 이들이 기념촬영 했다.

시련과 어려움 넘어 힘이 되신 하나님

창대교회 헌당 및 19주년 기념감사예배

창대장로교회 헌당 및 창립 19주년 기념감사예배가 10월 22일 주일 오후 4시에 있었다. 이춘준 담임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돼 대표기도는 주찬양교회 진석호 목사가, 성경봉독은 양문장로교회 고주모 목사가 했다. 이어 국제기독교대학교 개혁신학대학원 총장이자 나성열린문교회 담임인 박현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이어경, 권지성, 권희지 성도가 "십자가의 전달자"를 클라리넷과 플루트 연주로 헌금 특별 연주를 해 주었고, 권철균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교회 연혁을 영상으로 보며 많은 이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창대교회가 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 성전봉헌 기도를 이춘준 목사가 하고 정삼희 목사의 권면과 나성서부교회 원로 김승곤 목사의 축사,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후우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또한 특별히 추창호 목사의 축복기도 시간을 갖고 나성창대교회 정홍이 목사의 축사로 모든 예배가 끝났다. 이어 클라우디오 디아즈 목사의 식사 기도로 저녁 만찬을 즐겼다. 담임 이춘준 목사는 "이곳에 19년 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주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

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 건물의 부채도 상환하고 아름답게 수리하여 헌당을 할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다.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에워싼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여 오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은혜를 주셨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와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는 운동과 심령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성장하여 가기를 원한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신청 중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하는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올해는 12월 2일(토)에 있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LA기윤실은 11월 18일(토)까지 추천 및 신청을 받고 있으며 추천된 개인이나 단체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신청서는 LA기윤실의 홈페이지(www.lacem.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를 우편(3130 Wilshire Blvd #410, Los Angeles, CA, 90010)이나 이메일(email4lacem@gmail.com)로 보내면 된다. 기윤실 측은 "이 상을 통해 한인 교회와 사회에 좋은 모범 사례들이 알려져, 사회봉사의 실천이 더욱 퍼져 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니카라과 학교 위한 사진전

제프 연 사진작가가 니카라과 학교 내에 급식시설 건립을 위해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 사진전의 수익금 전액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니카라과를 위해 사용된다. 연 작가는 굿네이버스 자문위원 중 한 명이다.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Way Back Home"이며 연 작가가 21일 동안 미국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그는 니카라과를 돕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기

획하고 21일간 미국을 가로지르며 여행했다.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부에나파크 CGV 건물(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615호의 The Source에서 사진전이 열린다. 오픈닝 행사는 11월 11일 오후 6시다. 사진전은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주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이동구 목사 출판기념회와 전시회

홀리원장로교회와 홀리원미션을 섬기는 이동구 목사가 "사랑이신 하나님: 구원의 서정" 책을 출간하며 동시에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동일한 주제의 미술전시회를 연다. 시간은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시회 오프닝과 출판기념회는 11월 18일 오후 4시 시작될 예정이다. 장소는 작가의 집(2410 W. James M. Wood Bl. Los Angeles, CA 90006)이다. 이동구 목사는 추계예술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미주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다수의 개인전, 초대전, 단체전을 연 바 있다.

한 목회자가 저술과 미술을 동시에 해서 출판기념회와 전시회를 같이 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그는 "저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번에 책을 집필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운 영광의 복음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홀리원미션은 2011년 7월 7일 창립됐으며 홀리원교회는 미주총신대 소속 대학교회가 그 이름을 홀리원교회로 변경하고 이전하면서 창립됐다. 현재는 PCA(미국장로회) 소속이다. 문의) 310-365-0640

청년들 위한 '정체성' 세미나

예수전도단(YWAM)이 LA 지역 한인 청년들의 영적 재충전과 회복을 위해 '정체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YWAM-AIIM 베이스에서 사역하는 Sang Grossi 선교사다. OC 지역에서는 11월 16-17일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미주복음

방송 사옥(2641 W. La Palma Ave. Anaheim, CA 92801)에서, LA 지역은 17-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레이스미션대학교 LA 캠퍼스(3020 Wilshire Blvd. #170 Los Angeles, CA 90010)에서 세미나가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626-660-8488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의 장학금을 모금하기 위한 골프대회가 열렸다.

선교사 목회자 자녀 장학 위한 NCA 골프대회

명문 기독교사립학교인 새언약초중고등학교(NCA)가 지난 10월 28일(토) 정오 장학금 모금을 위한 제

6회 골프 대회를 라하브라 웨스트릿지 골프 클럽에서 열어 4만5천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새언약은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년 이 행사를 열고 있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달에 나눠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철저 정

현대 HYUNDAI
Pueñ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Happy Thanksgiving

추수감사절 예배 및 행사에 필요한 각종 디스플레이와 사인 지금 주문하세요!

www.caravancanopy.com

교회 휴대용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 캐노피는 18년의 대형 프린팅 전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14600 Alondra Boulevar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714.367.3046 (한국어)

플래그, X-배너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현수막, 롤업배너, 미디어벽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40>

터키는 지금 변하고 있다 (1)

2016년 3월 18일 "EU(유럽연합)-터키(Turkey) 난민 송환 합의"가 있었다. EU가 제한한 것이다. 난민 부양을 위한 상당한 재정지원과 이를 얼마간 이행하게 될 때 터키를 EU에 합류시키겠다는 조건으로 터키가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일기로 한 합의이다. 유럽 전역으로 난민들이 퍼지면서 EU의 나라들은 높아진 범죄율과 테러사건의 혐의를 난민들에게 두었다. 난민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극한 상황이 되자 EU가 터키에게 손을 벌린 것이다. 터키가 이를 수락했다. 그 후 유럽의 난민들이 터키로 몰리고 있다. 현재 추산으로 500만을 넘는 난민이 터키 안에 있다고 본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할하는 난민 수용소에는 20만명이 고작이다. 나머지 4백만명 이상은 터키 전역의 도시들로 들어가 도시빈민의 삶을 살고 있다. 도시의 밑바닥 생활을 한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필자가 2007년도에 처음 터키에 갔을 때, 그때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이다. 터키 7천만 인구중에 그리스도인이 고작 4000명이었다. 지금은 도시 난민들이 교회를 곳곳에 세우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과 같이 난민이 되어 들어온 한국 선교사들도 수백명에 이른다. 터키의 교회들을 빌려서 시리아인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아랍어를 쓴다. 터키에 아랍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아랍의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다. 아랍어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랍의 그리스도인들이 터키를 일으키고 있다. 터키 교회들은 도전 받고 있다.

필자는 난민 송환 합의의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고 믿는다. 터키는 이제 영적 전쟁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영적 전쟁은 악한 영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권세자가 싸우는 것이다.

시리아의 난민은 IS의 공격으로 더욱 많아졌다. IS가 주장하는 '이슬람 나라'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어 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많다. 그들보다 앞서 이란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키며 터키로의 난민이 많이 왔다. 이란 난민은 그 자체가 교회다. 바로 그 시리아인과 이란인들이 구약의 야수르 민족의 후예이다. 그 야수르의 후예들이 지금 바울의 사역지인 복음의 전진기지였던 소아시아의 나라 초대 7교회가 있는 터키로 몰려 온 것이다.

국경에 근거지를 둔 UN이 관



남가주 연세 콰이어를 중심으로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가 준비 중이다.

“이웃과 타민족에게 사랑의 컵라면을...”

종교개혁 500주년과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연세 사랑의 나눔 콘서트”가 남가주 연세목회자회(회장 김기동 목사) 주최, 연세대 남가주총동문회(회장 방하섭) 주관으로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 생수의강선교회(안동주 목사,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허리케인과 산불로 인해 고통 당하는 이웃,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 동포를 돕기 위해 컵라면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를 위해 남가주연세콰이어(지휘 이정욱)를 중심으로 TAO 오케스트라(단장 박현주), 남가주밀알수어찬양단(단장 이종희), 하모니아 챔버 오케스트라(지휘 박세연), 미주여성교향(지휘 오성애), 오렌지선교합창단(지휘 장진영), 랜디 김 밴드 및 다민족 찬양팀이 출연

한다.

김기동 목사는 “컵라면 한 그릇이 어려움을 당한 분들과 이웃과 타민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번 사랑의 컵라면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후원금을 연목회(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로 보내면 된다. Pay To는 FCEC로 해야 한다.

후원 문의) 714-262-1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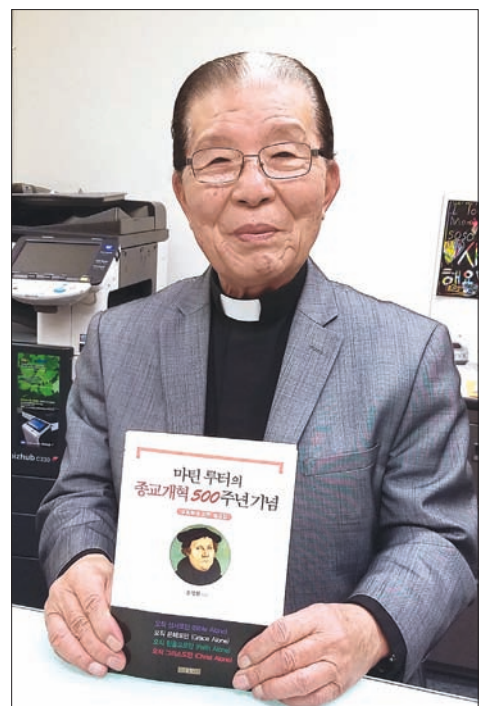
루터교 목회자가 말하는 복음적 설교

남가주 지역의 대표적인 루터교회인 중앙루터교회의 담임 홍영환 목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력에 의한 설교집>을 최근 펴냈다.

저자 홍영환 목사는 1937년 평북에서 태어났으며 선천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영락교회, 새문안교회를 섬긴 후 강신명 목사로부터 어린 시절 신앙을 배웠다. 이후 월남해 한국신학대, 연세대 신대원, 한국루터신학원, 미국 컨폴디아 신학원, 크라이스트루터신학원에서 공부하며 루터교 목회자가 됐다. 1970년 한국 대조동루터교회부터 시작하면 벌써 38년째 목회 중이다. 특히 그는 미주루터교단 북미한인 루터교 총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도 역임했다.

특히 종교개혁의 원조인 루터교 목회자로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동료 목회자들의 복음적 설교에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은 나의 창의적 설교가 아니고 사도, 속사도, 교부, 교회 지도자들이 2천년간 설교한 내용의 일부일 뿐”이라고 겸손히 말했다.

이 책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등 교회력을 따라가며 그가 전했던 설교를 요약해 모았다. 교회력을 따라 가며 그가 담담히 전하는 설교 안에는 종교개혁의 역사와 깊은 정신, 38년 목회의 관록과 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책 서두에 종교개혁과 루터교회, 교회력에 대



한 간단한 소개도 담겨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김준형 기자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위한 무료 강의 열린다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설립 및 운영과 회계 관련 무료 강의를 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주관으로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는 그레이스미션대학의 도서관 GL2 강의실에서 개최된다.

본 무료 강의는 한인 커뮤니티 및 교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준비되었으며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과 회계에 관심이 있거나 효과적인 운영을 원하는 목사, 선교사, 신학생, 전문인, 학교·비영리단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를 맡은 제임스 구 교수는 현재 그레이스미션대학의 행정처장

과 교회행정 및 커뮤니케이션, NPO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으며 경영학, 및 IT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에 있다.

강의 일정은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예정이다. 강의와 관련한 기본 안내자료는 당일 참석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714-393-4595

지저스키즈 교사 무료 세미나

지저스키즈(Jesus Kidz)가 이민 교회를 섬기는 어린이 부서 교사들을 위해 무료 교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4일(토)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홀러톤장로교회(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세미나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찬양, 설교, 성경공부, 풍선 크래프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관련 DVD 자료도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213-422-0022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세미나 및 추수감사 초청의 밤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ATS 정회원 CHEA 정회원

GMU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TRANSFORMING MISSIONS

새롭게 변화하는 현대 선교 이슈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박사원에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선교와 이민 목회에 생명을 바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을 GMU로 초대합니다.

11/13(Mon)	9am ~ 6pm	제목 : 선교적 교회 강사 : 이상훈 교수 (SOMA 대학교 학장, 풀러 겸임교수)
11/20(Mon)	9am ~ 6pm	제목 : 한국선교운동과제 강사 : 박기호 교수 (풀러 선교 대학원 석좌교수)
11/27(Mon)	9am ~ 6pm	제목 : 선교적 리더십 개발 강사 : 이광길 교수 (SOMA 대학교 총장, 풀러 겸임교수)
12/6(Wed)	9am ~ 6pm	제목 : 선교사 멤버케어 강사 : 조나단 강 박사 (멤버케어 전문가, 한인가정상담소)
12/11(Mon)	9am ~ 6pm	제목 : 종교개혁이 미친 선교역사 강사 : 최규남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총장)

선착순 50명 마감
10월 30일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GMU 캠퍼스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대 상 : GMU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
등록비 : \$50 (점심, 교재 제공)
연락처 : T(714)525-0088 (담당: 황의성 목사), 이메일 dmiss@gm.edu 홈페이지 gm.edu

추수 감사 초청의 밤 (Open House)

날짜 : 11월 21일(화) 7:00pm
장소 : GMU 예배실 (Miracle center 1층)
행사내용:
- 학교탐방 (Campus tour)
- 학위인가 및 과정 소개
- 정부학자금 보조 소개
- 학생 비자 소개
-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 소개
- 입학관련 질문과 답변
* 학업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특별상품추첨
* 참여자에게 기념품 및 입학금면제
* 추수감사 터키 디너 및 음료
* LA 연장 클래스 운영

2018 봄 학기 신입생 모집학위과정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
----------------------------	---



Grace Mission University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학교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디도서 1:5-1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첫째로 세우신 목자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여야 할 것이고 그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며 양떼들로 하나님 기대에 합당한 성도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 방침이 확실하고 영적 체질 신앙이 하늘나라로 통하는 교회가 됐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부딪히는 심령들이 죄악의 응어리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거듭나서 의인의 반열에 거룩한 성도로 구원을 얻어야 하며,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서 목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에 합심 전력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방색을 드러내며 폐당을 짓고 서로 헐뜯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가장 바로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전심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 바울의 선교를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으로써 디도(원어로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고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체계적인 복음을 깨우쳐 주고 기도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함께 모시고 살면서 바울 사도께서 밤낮 소원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몸부림치는 삶의 목적이 뭐가 그것을 디도가 잘 깨달았습니다. 디도는 성경에서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 성과를 위하여 자기 생애를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도하고 봉사하기를 힘쓰다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생활, 사명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 또 사명 의지와 또 희생 봉사하는 것을 그대로 전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거침없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버지 바울을 믿음으로 아주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성숙되고 또 수준급으로 자라게 됐

기 때문에 그를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남겨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때엔 신학교 제도가 없었던 시절이라 그 누구를 교회의 목자로 세운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그곳에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여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들마다 무슨 부족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또 바울이 명한 대로 각 동네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목회를 위한 목자를 여기서 장로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목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어떤 기준으로 세우느냐면 6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책망 받을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한 것은 일부다처제로 여자 여러 명 데리고 사는 일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녀들, 아내나, 부모님들의 믿음이 하나같이 확실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목회자를 일명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또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들이 약점이 많고 책망받을 일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칼날같이 찢어 쪼개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게 될 때에 자기 입장 때문에 힘 있는 교훈을 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고 그 반대로 그 약점이 상대방들로 하여금 교육적 성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타게 복음을 위하여 순교적 각오로 피나는 수고와 고생과 노력을 하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 순교하기까지 힘쓰고 애썼던 것은 자기 영혼이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함이 첫째였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성과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엮으려치는도다”

이 말씀은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여러 집안이 있었는데 거기의 지도자들은 아부하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주머니를 노리고 빼앗아 챙기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 중에도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고집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아주 헐뜯고 비방하면서 예수 같은 거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선동하면서 많은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즉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구원의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헛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주머니 털어먹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들이 망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하늘 복을 얻어 하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가정이 항상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레데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 또 악한 짐승처럼, 또

배만 위하는 거짓말쟁이 되지 말자는 것과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 대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레데인들의 악함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영적 소망의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유대교의 선동에 휩쓸려 가지고 속아서,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에 사도 바울 혼자서는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다 보살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총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손발 노릇을 잘 하므로 그레데의 복음화를 위하여 놀라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간에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선교하는 방식은, 선교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지역 단위로 각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 목회 사역을 하게 하고 그 어느 지역에 미주면 미주, 또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이런데다가 감독자를 꼭 파송해서 그 감독자로 하여금 그 지역 모든 선교사들을 총괄해서 바른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보살피고 이끌어 주는 역할로 선교하는 방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훌륭한 목자를 모셔야 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선한 목자를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목자의 신앙처럼 인정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생활 신앙으로 분을 보이고 또 덕을 끼치면서 선교에 힘써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바로 세워서 세계 선교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 끝날까지 자원하는 열심으로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www.pecpc.com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제10회 정기 연주회

단장 강평근 목사
 지휘 이재경 목사
 피아노 헬렌박 집사
オルแกน 샤론리 사모

특별출연 |

LA남성선교합창단
 Los Angeles Young Players
 에버그린여성합창단

2017. 11. 11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933 S.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총무, 백선용 목사 213.550.8778 / 서기, 문재성 목사 818.454.2274

www.sellacare.com SEARCH

Congratulations!

서울대학병원/암센터내 샵 **입점** 고려대 안암병원내 샵 **입점**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싶다면 **혈액순환, 혈관건강**부터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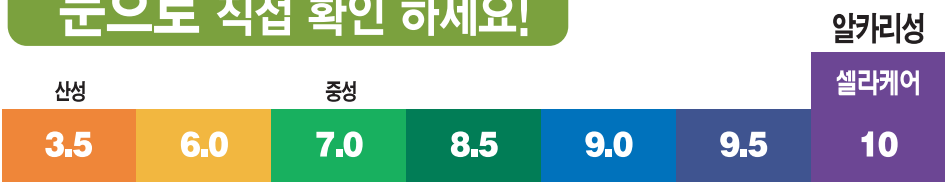
- **혈관성** 치매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건강식품 섭취하여 혈관성 치매 예방
- **뇌졸중** 기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은 피하고 섭취함으로써 뇌출혈 예방
- **동맥경화** 평소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을 복용하여 신체의 혈관청소에 도움 줘야
- **고지혈증** 음주를 자제하고 수영, 등산 등 운동과 함께 혈액혈관 영양제 복용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5 소비자의 재구매 확률이 높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셀라케어 제품은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의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현대약국 (웨스턴+5가)	213.480.3322	세리투스 파이오니아약국	562.402.6972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시온마켓 엄마손약국	213.739.3030	에나하임	714.469.5809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얼바인	949.330.9009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텍사스 (Nature's Gift)	972.280.9006
시온약국	213.344.973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발보아 약국	818.831.2090	로렌하이츠	626.912.5727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랜드 건강헬스(그린마켓 내)	626.839.2868	하와이 (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캐나다	604.872.1669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든그로브 만미당옆	714.333.7866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한성한의원	714.638.5100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세리투스 패밀리약국	562.402.0500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세리투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한국총판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 02.2072.1579 / 암센터내 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뉴욕교협 신구임원이 기념촬영을 했다. 직전회장 김홍석 목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신임 회장 이만호 목사(왼쪽에서 다섯 번째)에게 교협기를 전달하고 있다.

뉴욕교협 신임회장 이만호 목사 신임 부회장 정순원 목사

23일 제43회기 정기총회 열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제43회기 정기총회가 23일 오전 10시 뉴욕목양장 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개최, 신임회장에 이만호 목사가 당선됐다. 관심을 모았던 부회장은 정순원 목사가 선출됐다.

회장후보로 단독후보였던 이만호 목사는 이날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부회장 선거는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정순원 목사가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는 재석 172명 중 김영환 목사 70표, 정순원 목사 99표를 얻었으며 2차 투표에서는 재석 163명 중 김영환 목사 62표, 정순원 목사 101표가 나왔다. 3차 투표 직전 김영환 목사는 정순원 목사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자진사퇴, 정순원 목사의 당

선이 확정됐다.

감사는 김영철 목사, 김기호 목사, 이상호 집사가 선출됐다.

신임회장 이만호 목사는 취임 소감에서 “영적 쇄신과 소통,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해 전문 분과위원장을 잘 선별해 운영할 것”이라면서 “신바람나고 행복하고 밝고 맑은 뉴욕교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 주목을 받았다.

신임회원으로는 포레스트파크개혁장로교회(담임 나영애 목사), 뉴하트선교회(담임 정민철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심화자 목사), 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가 가입했다. 가나안임성교회(담임 김용해 목사)는 가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디딤돌선교회가 추운 겨울을 지낼 사랑의 자켓을 나누어 주었다.

다시 찾아 온 추운 겨울 사랑의 자켓 나누기 행사 열려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오섭 목사) 사랑의 자켓 나누기 행사가 지난 28일(토) 다운타운 Hurt Park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미 주류 교단의 하나인 루터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디딤돌선교회의 사역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기도 하다.

100명이 넘는 봉사자들이 참여한 이 행사에는 실로암교회 학생부의 찬양과 토니리 목사의 기도가 있었으며 믿음 루터란 교회의 톰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500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250벌의 겨울 자켓과 양말, 치약, 치솔, 삼푸, 비누 등 생활용품과 음식을 제공했다.

디딤돌선교회는 지금까지 8년 동안 매년 겨울을 맞이해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두터운 겨울 자켓과 담요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가져왔다. 이 행사는 10월 말 시작돼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된다.

윤수영 기자



헤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 설립 39주년 임직식

헤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 설립 39주년 임직식 열려

헤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담임 최병걸 목사)는 지난 22일, 설립 39주년을 맞아 안수집사 7명, 권사 8명, 집사 5명 등 모두 20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임직자들은 지난 10주 동안 철저한 교육을 바탕으로 교회 직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세를 배웠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병걸 목사는 “직분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의 바른 외침에 전심으로 동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김 기자

교회는... 신교회는...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기/버몬트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培育和 이끄는 사명을 위하여, 이민가정을 치유하여, 선교를 영감을 주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LA세계선교회 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장태원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p> <p>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한현영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강진웅 담임목사</p>
<p>주일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1317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 오후 7:30</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진유철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2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한국교회 토 오전 10:00-오후 8:00 한아침년부 오후 1:30 오영미어회 오전 11:00-오후 8:00</p> <p>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영성을 말하는 교회, 영적 리더십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cl.org</p> <p>서건오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아침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박헌성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새벽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김민수 담임목사</p>	<p>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세안반복교회 토요일 오전 9:30 수요루터모임: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저녁 8:00</p> <p>강양구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박은중 담임목사</p>	<p>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말씀)에(소매)에(말) 오전 11:00</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정장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p> <p>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류종길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신승훈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30(토) 유초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p> <p>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이명수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p> <p>민중기 담임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p> <p>곽부람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 오후 7:30</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강지원 담임목사</p>
<p>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p>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p> <p>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p> <p>이희철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p> <p>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p> <p>신용환 담임목사</p>
<p>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p> <p>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p> <p>김성원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p> <p>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p> <p>김준식 담임목사</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p>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p> <p>조승철 담임목사</p>	<p>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학교 오전 10:00-오후 1:00</p> <p>무리에타 한인장로교회 믿음과 충성으로 서자 24736 Washington Avenue, Muriet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ietchurch.org</p> <p>김성수 담임목사</p>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오전/월-금)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최승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종교개혁기념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종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및 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및 초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성기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일성경대학(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이룸담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화-토) (토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윤 목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케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엔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김인식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자라기 위하여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최혁 담임목사
별리채플 Valley Chapel LA에베레투스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토 5: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9514 Firado St., Northridge, CA 91328 949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818)363-5887 Tel: (213) 232-3163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 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도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성경예배 8:00pm
새벽예배 (화-토) 5:00am (다닐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정동성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나성교회
Nasung Church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562) 690-7979 F.(562) 690-0038
www.nasungchurch.net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원로-후임 갈등 등 교회 분쟁의 발생 원인 6가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 호사) 주최 제11차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가 '교회 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주제로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 중국홀에서 개최됐다.

먼저 박재윤 원장(전 대법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교회 안에는 분쟁을 해결할 마땅한 기구도 인물이 없기에, 상급기관인 노회와 총회 재판국 등 법적 해결기관에 각기 맞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지만, 패소한 측에서 재판결과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사건을 세상 법원으로 갖고 간다"며 "1심에서 대개 교단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고,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면 세월은 한없이 흐르고 해결의 징검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 분쟁의 발생 원인으로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따른 사랑과 관용의 원리에 충성하지 않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 헤어지지 못하는 것 △담임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것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 등을 꼽았다. 또 △가치관과 국가관, 시국관을 달리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교회 분위기나 설교가 사회에서의 진영 논리를 반복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장로들이 교회 일에 대한 열성과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목회자의 목회 방향과 충돌하는 것 △담임목사가 정년 등으로 퇴임하면서 후임 목사가 취임하고, 전임 목사를 원로로 추대한 경우, 둘 사이 갈등이 생기면서 당회원과 성도들이 양분돼 다투는 것 등 총 6가지를 열거했다.

박 원장은 이러한 교회 분쟁에 대한 교회 내부 해결과 관련, "교회 치리회인 당회는 범법자에 대한 권징 권한이 있고, 권징에 있어 사제의 원인을 가려 합리적 처리가 요구된다"며 "분쟁 원인행위자를 가려 권징하는 경우 수사관이나 재판관처럼 결과만 놓고 처벌을 가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여자를 면담하고 대립된 의사를 교환해 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화해를 유도한 후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처벌을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상급기관인 노회와 총회 재판국에 의한 해결에 대해서는 "평신도 간의 사소한 분쟁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당사자가 된 분쟁의 경우 노회와 총회의 재판국이 분쟁 해결의 1차적이며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렇게 교회 내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기관에서 그 직무와 권한에 따라 행하는 재판을 교회재판이라 부른다"며 "교회재판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재판의 실제(결론)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실제법과 절차법(소송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교회재판에 대한 국가(법원)의 자세는, 우리나라가 헌법 제20조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가지므로 교회재판 중 종교 교리 문제로 생긴 권징 재판과 교회의 순수한 내부적 지위(교인 자격이나 각종 직분)의 박탈이나 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내부적 지위에 의한 사항 중에서도 어느 개인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다시 말해 그것의 당부를 가리는 데 필요한 선결문제가 되는) 사항일 경우, 교리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 한 직접 관여해 타당 여부를 가리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회재판에서 패소하거나 징계를 받은 측에서, 교회법상 불복 절차를 다 거친 뒤에 또는 불복을 포기한 채 국가법원으로 사건을 옮겨가는 사례

가 근래에 부쩍 늘었다"며 "이러한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는데, 명색이 교단의 최고법원 격인 총회재판국 판결이 유효보다는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교회재판국의 재판이 세상 법원에 가서 무효화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먼저 교회재판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박재윤 원장은 "교회 동료들과 설명 사이가 나빠져 서로 질시하고 트집만 잡는 사이가 됐더라도, 거기서 그쳐야 이를 발미로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적발해 침소봉대하면서, 여기저기로 탄원서와 폭로문 같은 것을 보내다 마침내 교회 재판부에서 고소를 제기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며 "이런 일은 신성한 교회의 재판기관과 재판절차를 개인적으로 농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둘째로 '교회법 규정들이 전문적 검토를 거쳐, 적절하고 알기 쉬우며 합리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교단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지만, 아직 미국 선교사 전래 당시의 옛 문장과 단어와 체계로 된 교회법전을 고치지 않는 교단도 있더라"며 "비논리적이고 부정확하며, 필요한 조문은 없고 불요불급한 조문은 많이 남아 있는 식의 교회법으로 이뤄지는 재판 고정의 마지막 모습은 묻지 않아도 뻔하다"고 했다.

셋째로 '교회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의 자질과 열성과 능력의 향상'을 제언했다. 박 원장은 "국가법원 판사들과 같지는 못하더라도, 이에 버금갈 정도의 법률 지식과 재판 관여 경험을 갖추고, 자신이 내린 재판의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자질과 열성을 갖춘 분만이 각급 교회재판 기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기관의 규모는 국가법원처럼 3인조, 많아야 5인조를 넘기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재판부가 지금처럼 일반 목사와 장로 수십 명으로 구성된다면, 그것은 재판관들의 협의나 토론이 아니라 회의의 마당일 수밖에 없다"며 "각 교단에 소속된 변호사 등 인력을 과감히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고, 법률가만으로 구성하기 어렵다면 법률가와 비법률가의 혼성 연합체로 구성하거나, 법률가인 자원위원을 재판부에서 부속시켜 실체적·절차적 법률조언과 판결문 감수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윤 원장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9년 전 초교파적으로 기독교법인 그룹 및 교회의 지도급 목회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립됐고, 몇 년 전부터는 대법원 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단법원으로 개편됐다"며 "현재 서울 소재 고등법원과 5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관계를 맺고 법원에 계류중인 교회분쟁 소송사건을 위촉받아 법원 외 조정의 일익을 맡고 있는 공적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화해중재원이 발전해 교회분쟁의 평화적 해결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후 광중훈 변호사(법무법인 이경)가 '회의체 방식의 의사결정에 관한 분쟁과 문제점', 김지한 목사(예장 통합 정치부장)가 '교회 분쟁의 화해적 해결에 있어 화해중재원의 역할', 고승환 판사(서울중앙지법)가 '분쟁의 발생과 해결(조정을 중심으로)'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극단주의 무슬림인 풀라니 목자들에게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묻고 있는 나이지리아 교인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나이지리아 무슬림 목자들 공격으로 기독교인 48명 사망 집과 교회 파괴하고 불 질러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48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부 생존자는 무슬림 풀라니 목자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집과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을 해쳤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워닝올복음주의교회(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ECWA) 다우다 사무엘 카디아 장로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도망쳤다. 나도 총에 맞았는데 다행히 손을 스쳐서 찰과상에 그쳤다. 또 이번 공격으로 교회 건물들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풀라니 목자들은 지난 10월 8일부터 17일 사이, 풀라토주에서 수 차례 폭력 사태를 일으켜 48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가톨릭 신자 야가도 아우라(62)는 "풀라니 목동들은 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와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옆집에도 똑같이 했다. 그들은 마을을 떠날 때까지 계속 불을 질렀다. 아내와 나는 마을의 동쪽으로 탈출했고, 바위에 숨어 그들이 하는 일들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보고서에서 "이 지역에서 이같은 습격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단기간에 발생한 공격 횟수와 잔인함은 사면초가에 몰린 주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력이 완전히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더욱 우려할만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을 지도자이자 ECWA 교인인 모세 토후는 "검문소에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풀라니 목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가? 이같은 공격은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 이같은 공격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와 집들이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움직임과 작전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들이 보안 요원들에게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릭 워렌 목사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릭 워렌 목사의 조언

최근 새들백교회의 담임인 리 워렌 목사는 그가 운영 중인 '데일리 호프' 웹사이트에 '불가능한 일을 요청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칼럼에서 워렌 목사는 "누군가 당신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요구했는가? 친구, 상사, 부모님이 당신이 하기에 너무 큰 일을 하길 바라셨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신은 아마도 지금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수 있다.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불가능한 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부터 살펴보자"라고 전했다.

워렌 목사는 먼저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 후 점성술사들을 불러 해몽을 부탁한다. 그들이 해몽을 하지 못하자 왕은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른다.

워렌 목사는 먼저 패닉에 빠지지 말라고 조언했다. 워렌 목사는 "당시 17세의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지혜와 슬기로운 말로 이른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모든 사실에 대해 듣고, 왕의 요청에 담긴 동기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서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한

다"고 조언했다. 이어 워렌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은 죽음이 두려웠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을 때, 감정적이 된다. 그리고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가능한 요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모든 사실 정황을 잘 따져보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라. 왜 그러는가? 위기가운데서 당신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은 충동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빠른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보다 올바른 결정이다. 잘못된 결정은 얼마나 빨리 결정을 내렸느냐와 상관없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진정한다면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나라'(단 2:16)"

워렌 목사는 "다니엘은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왕 앞에서도 시간을 달라며 즉각적으로 요청한다. 다니엘은 미루지 않았다. 그렇다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압박을 받는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8: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 초, 중부 예배 오전 11:00
 토, 일 새벽예배 오전 6:00 셀라곡예배 : 매일 4매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8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i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2:20 **민승기** 담임목사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 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C대학원부 오후 2:00

얼바인은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 (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 (토)
 4부예배 오후 1:30 (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김인철** 담임목사
 주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Orange Cannan Presbyterian Church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 (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937 W. Chapman Ave. #105,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ola.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제24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2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7년 12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가주치과 대표 오덕재 원장, 나성열린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솔종합보험,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라이온스클럽, 올림픽 칼국수

후원 기독교일보, FH미선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본 교회는 창립 33년 되는 LA 소재 교회로 투철한 소명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갈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1. 부 목사님(Full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이상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
- 40세 미만의 기혼자
-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원활하신 분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

2. Youth Group(중고등부) 전도사님(Part Time)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나 재학중인 분
- 영어 설교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하신 분
-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분

3. 찬양 리더(Part Time)

- 찬양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으로 기타나 키보드로 찬양 리더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 및 가족 사진)
2. 자기 소개서 (신앙 간증 및 목회 소명)

제출기한 및 방법

1. 제출 서류 마감 : 2017년 11월 30일(목) 까지
2.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메일로 보낼 것

Email : lalkcyoon@gmail.com
lk0085@sbcglobal.net

사랑한인교회

2801 W. Temple St. LA., CA 90026
담임목사 하재석

성실한 마음을 가꾸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는 어릴 적에 아주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샴바느질을 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제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조차 못했습니다.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저는 늘 애소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한 살 먼저 입학해서인지 늘 키가 작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키는 작고 코는 납작한 제가 스스로 보기에조차 안스러웠습니다.

가난하게 성장하면서 어느 날 문득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난하고, 머리도 좋지 못하고, 공부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힘든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삶의 무기는 성실이었습니다. 성실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실은 진실함이었습니. 착실함이었습니. 한결같음이었습니. 어린 나이에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실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실한 성품은 좋은 성품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본 성품입니다. 성품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좋은 습관은 반복과 지속 그리고 끈질긴 인내를 통해 형성됩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

실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실이 모든 좋은 성품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할 때 무엇이든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씨앗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심고 성실하게 가꾸지 않는다면 신성한 성품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신성한 성품 중의 하나인 "덕"이라는 성품은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할 성품입니다(벧후 1:5). 헬라 사람들은 "덕"을 탁월함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사람들은 "덕"을 탁월함과 용기의 조화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덕"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시 54:5, 시 89:49, 시 119:90; 예 3:23).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미덕 중의 하나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실한 성품은 성실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실한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시 78:72,

개역한글).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 칭찬하신 것이 그 손의 공교함입니다. 성실함이 공교함을 낳습니다. 무엇이든 성실하게 행할 때 그 분야에 능숙하게 됩니다. 한 분야를 1만 시간 또는 10년 동안을 꾸준히 집중하게 되면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됩니다. 한 분야를 10년 동안 꾸준히 반복하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소중한 일에 집중하고, 지속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항상심(恒常心)"입니다. 즉 변함없이 같은 마음입니다. "초심"을 가꾸는 마음입니다. "항상심"에서 "항상심(向上心)"이 나옵니다. 항상이란 실력이 나 기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끈질기게 지속할 때 한 분야에 통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실한 마음을 가꿀 때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호 6:3).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히 13:8). 남편과 아내가 성실하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의 유익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평생 학습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배우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게 되면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성실한 성품을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끊임없는 개혁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회

제가 처음 저희 집으로 이사온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동네가 형성된 지 3,4년 밖에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집 주위 녹지대에 나지막한 높이의 어린 나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네의 분위기는 누가 보더라도 갓 개발된 동네라는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면 한 번 하고도 반 정도 바뀔 수 있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동네의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음을 동네 산책을 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려진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로 바뀌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어 동네 도로변에 누렇게 떨어진 큰 낙엽들이 스산하게 떨어져 나뭇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외벽에 칠해진 페인트 색이 바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은 차고 앞 콘크리트가 금이 가 을 씨년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14년 전 산뜻했던 동네의 모습은 무언가 고치고 다듬어야 할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네 집 가운데 가장 새 집 같은 집을 가진 이웃은 '마크'입니다. 소방관으로 비교적 바쁜 삶 속에서도 집 손질에 유난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쉬는 날이면 손수 집을 손질합니다. 잔디를 깎고, 꽃을 심

고, 유리창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차고 안에 선반을 설치하며, 집 외벽 곳곳을 돌아보며 페인트로 터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또렷이 드러나는 대부분의 집과는 달리 마크의 집은 언제나 새 집 같습니다. 가치를 지닌 것은 끊임없이 손질해 주어야 합니다.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가치에 대한 무지 또는 의도적 무시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뜻합니다. 너무도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절대적 팩트(Fact)입니다. 그렇기에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큰 가치를

품은 신앙의 삶은 끊임없는 손질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방치될 때 나타났던 폐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500년 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이 버젓이 예배당 안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절대 진리의 기준이 성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전통으로 위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구원조차 몇 푼의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무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년전 종교개혁가들은 신앙을 손질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을 잘 알았던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은 지속적인 신앙개혁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방법은 그냥 방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앙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시간과 열정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배, 훈련, 개인 경건의 시간, 기도 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신앙이 신앙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에 제발 토를 달지 마십시오.

끊는 무릎이 능력입니다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인침례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무릎으로 간다." 이것은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능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과 풍성한 축복을 맛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끊는 무릎"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 현실 속에 끌어 오는 전력선(Power Line)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아도 전력이 끊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교회건 개인이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도 기도입니다. "끊는 무릎"이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창출하며, 선교의 위대한 결실을 가져 옵니다. 이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모든 분야에 "끊는 무릎" 운동이 필요합니다. 양무리 사역도, 예배의 부흥도, 건축과 선교의 비전도 "끊는 무릎"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고, 사도 바울도 기도가 복음의 문을 열고,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임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부흥도 기도가 그 열쇠였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 운동으

모든 회복과 치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과 새 변화의 물꼬를 터는 것도 "끊는 무릎"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의 창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높을 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살롬!

〈박창성 목사의 특별 기고〉 창조과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에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이 대중 매체를 통하여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론의 글을 올립니다.

오해1. 창조를 증명하려고 한다?

창조과학은 인간과 동·식물을 비롯한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자연현상만으로 변화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가설이라고 판단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9-20). 우주 만물에는 자연현상만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정교한 설계와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리석고 진화론 교육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성경의 중요한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창조를 실제로 재현해 보거나, 이성적인 논리로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2. 안식교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대해 알려주시는 내용을 성경적 창조론(Biblical Creationis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깨달은 일반계시와 과학적인 증거들을 과학적 창조론(Scientific Creationism), 또는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였던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믿었기 때문에, 뉴턴(Newton, 1643-1727), 케플러(Kepler), 보일(Boyle), 파라데이(Faraday), 파스퇴르(Pasteur), 켈빈(Kelvin), 등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큰 공적을 남긴 저명한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Creation Scientists)이었습니다. 이 분들로부터 창조과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창조과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859년에 다윈(Darwin)이 “종의 기원”을 출판한 이후로, 진화론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창조론이 퇴조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게 되자, 창조과학자

들의 수도 매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회는 무신론적 진화론의 영향으로 쇠퇴하고, 신학은 성경을 진화론에 맞추어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Liberal Theology)으로 변질되거나, 진화론도 믿고 창조주 하나님도 믿는 유신론적 진화론(Theistic Evolution)으로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이 거의 승리를 굳혀가는 것처럼 보이던 1961년, 미국의 헨리 모리스(Henry Morris) 박사가 등장하여, “창세기 대홍수(The Genesis Flood)”라는 책을 저술함으로써, 창조론을 다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리스 박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창조과학자들이 모여들었고, 전 세계에서 진화론자였던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론자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창조과학은 더욱 보완되고 체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리스 박사가 주도한 현대 창조과학 운동의 초기에 지질학자 조지 프라이스(George Price)를 비롯한 안식교 교인 과학자들의 연구가 부분적으로(특히, 홍수지질학) 공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창조과학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또한, 진화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연구한 안식교 교인들의 과학적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지, 안식교의 신앙이나 교리를 받아들인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창조과학의 발전에 안식교인들의 과학적 연구가 부분적으로 공헌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창조과학은 결코 안식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신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창조과학은 안식교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비판하는 것은, 창조과학자들을 이상한 신앙을 가진 집단인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해3. 전문가 아닌 아마추어들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진화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 기록의 진실성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과학자들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기초과학, 응용과학뿐만 아니라, 공학, 의학, 등 여러 가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창조과학은 이 분들 중에서 전문적인 단체나 학술기관에서 활동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조과학은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의 주장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창조과학



박창성 목사
세계창조선교회 회장

운동에 참여한 분들 중에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일부 회원들이 있음을 보고 비판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4. 입증된 현대과학을 무시하는 사이비 과학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자연과학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귀중한 학문으로 여기며,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대과학 중에서 우주 만물의 기원에 관한 가설로서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는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주장에는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자연법칙과 상충되는 여러 가지 비과학적인 가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로부터 생물의 자연발생, DNA 유전 정보의 자연발생, 단세포 생물에서 복잡한 기관을 가진 고등생물로의 진화, 대폭발 후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있는 우주로의 진화, 가스의 수축에 의한 별들의 형성 등이 해당됩니다. 창조과학은 이와 같은 비과학적인 가설들을 가려내어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맹목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고 추종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과학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이 사이비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을 모른 채, 오로지 자연현상만으로 우주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과학의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냉정히 살펴보면, 능력과 지혜가 없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물질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고도의 지능과 영혼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이 사이비 과학입니다.

오해5.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한다?

성경을 저자의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하려면, 문법은 물론이고 문맥과 성경전체의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와 종교적 배경

까지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실을 그대로 서술하는 형식 이외에 시, 예언, 편지,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되었고, 비유, 상징, 과장 등의 문학적 수사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떤 장르에 해당되는가를 파악하여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성경 구절의 사전적인 뜻만을 생각하여 해석하는 것을 문자주의(Letterism) 해석이라고 하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종합해 보면, 문맥과 장르,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서 해석하되, 비유나 상징, 영적인 의미로 표현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성경 구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일차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 원칙에 충실한 성경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은 물론, 신학자들도 성경을 성경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들인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경이 알려주는 일차적인 의미를 그대로 믿었던 구절들을, 진화론이 만연되어 있는 현대에 와서는 상징, 비유, 풍유나 영적인 의미, 심지어는 오류가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와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사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신화로 해석하고, 아담과 하와도 실제로 존재했던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그와 같은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 성경 기록들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창조과학자들을 문자주의 해석을 한다고 비판합니다.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인 창조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일반계시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뒷받침하는 변증을 해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조과학자들의 노력이 일반계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의 시각으로는, 문자주의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저자의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는 문법과 문맥,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주의 해석을 해서도 안되고, 시대의 조류에 맞추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하지도 않은 의미로 부당하게 바꾸어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6. 세대주의와 관계가 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견해로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과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언약신학은 구약과 신약시대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이 연속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반면에, 세대주의는 일곱 가지 시대(무죄, 양심, 인간통치, 약속, 율법, 은혜, 천년 왕국)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리고 구원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로 이어졌다고 보는 반면에,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일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천년 왕국시대와 관련된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거나, 이단적인 신앙을 퍼뜨린 경우가 있어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창조과학이 세대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창조과학은 언약신학이나 세대주의, 또는 종말론과 같은 신학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과학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고, 사역분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창세기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변증에 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창조과학 운동에 참여한 분들 중에는 신학을 전공하였거나,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분들 중에 세대주의 견해를 가진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 창조과학 전체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필자도 세대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박창성 목사 약력

- (전) 명지대, 아세아연합신학대 객원교수
- Western Seminary 선교학 박사 및 전문 목회학 석사,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ICR) 과학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과 졸업
- CBS, CTS TV 특강 강사

기독일보와 'Repair Servant'가 함께 하는 목회자 세미나

목회에 스마트폰 활용하기

스마트폰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나누는 이번 세미나에서 귀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용 : 스마트폰을 이용한 설교 본문 작성
IT를 이용한 전도 방법
카카오 플러스 친구 소개

- 강사 : 윤승준 집사 (36년 경력의 IT 전문가 / GBC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진행자)
- 일시 : 2017년 11월 6일(월) 오후 2시
- 장소 : 기독일보 컨퍼런스룸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회비 : \$10 *선착순 20명으로 마감하니 전화로 등록 바랍니다. (213)739-0403, (213)434-1170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빠른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65 (Stand X-Banner) \$140 (Retractable Banner)

한 의사 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인하소반주 각종 김치

626-731-7864 (\$40이상 주문시) 무료배달

갈비만두, 매운갈비만두 (40개 \$20)
 김치교자, 부추교자 (50개 \$20) 왕만두, 팔짚빵 (10개 \$10)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류마티스 관절통증 }
 ✓ 발가락 { 퇴행성 관절통증 }
 ✓ 마디관절 { 손목, 발목 질환 }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TMJ 턱관절 장애

• 우울증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만성두통, 요통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2018 NEW CALENDAR

Best Seller

2018 성경 통독 도우미 달력

최소 100부 \$3.5 ea

주님미디어 323.265.0244

주님과 함께하는 30일

탁상달력 사전 주문 시작합니다. 9월 30일 이전까지 주문완료 해주시 교회한테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착오없이 빠르게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캘리그래피 특성상 주님미디어에서 직접 쓴 붓글씨로 제작하였습니다. 달력이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New 말씀통독 달력버전

기도제목 칸과 말씀통독할 수 있도록 모든날짜에 말씀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열두달의 삶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주님미디어의 2018년 달력은 두가지 버전으로 준비 되어 있습니다.

323.265.0244

일반캘리달력과 1년통독달력으로 원하시는 것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본수량은 100부이며 다른수량을 원하시는 교회나 공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바로 상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2018년도를 준비하시길 기도합니다.

70mm 250mm 180mm 160mm

주님미디어 323.265.0244

교회예배찬 (일문백)



엘라 골짜기의 모습



■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49)

엘라 골짜기에 선 다윗과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엘라 골짜기

‘상수리나무 골짜기’란 뜻을 가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Ella Valley)는 해안 평야에서 세펠라 평지를 지나 유대 산악지역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다. 벳구브린에서는 차로 약 15분이 걸리며 벳세메스에서는 7분 정도 걸리며 베들레헴으로부터는 약 25Km쯤 떨어진 곳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소원을 이루었으나 지중해 평야 지대의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여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 사무엘 선지자의 선택으로 기름부음을 받게 된다. 물론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운다.

그 후 블레셋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입하려 하자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서로 싸움을 시작한다.(삼상17:1-58) 이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사가 나타나 블레셋의 사기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용감하게 나설 자가 없었다. 다윗은 그 모양을 보고 의분이 생겼고 곧 사울을 만나 전쟁 출전을 허락을 받게 된다. 소년과 거인의 싸움, 누가 보아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 이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며 세상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영적 전쟁으로 들어간 싸움이니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

님의 시각으로 보자. 40일 모욕당한 하나님은 가장 어린 자를 통하여 보복하시기를 원하신다.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통하여 40일을 비겁하게 움츠렸던 이스라엘을 깨우고 이방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고 싶어 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다.

이 전쟁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곳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알게 된다. 다윗은 작지만 거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영적인 거인이 되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는 이스라엘의 위성안테나 기지가 있고 그때의 시냇물은 말랐고 주변에는 풀만 덮여 있다. 그러나 엘라 골짜기에 서면 그 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광경이 떠오른다. 버스 정류장에 잠깐 멈추고 내려서 엘라 골짜기를 바라보자. 그 날의 함성이 들려온다. 그 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또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과 신앙, 용기와 담대함에 의하여 승패가 갈리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 전쟁의 승리를 기점으로 다윗은 영웅으로 떠오른다. 물맷돌 한 개의 위력은 곧 하나님의 위력인 것이다.

블레셋의 다섯 도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 가운데 지중해 해안 평야 중 남쪽 부분이 유다 자손에게 주어졌으나 후에 단 지파의 소유가 되었다.(수 13:3, 15:45, 19:43)

그러나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거치는 동안

에도 점령하지 못하는 땅이 되었다. 항상 이스라엘의 적대적 땅이 되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다섯 도시 가운데 가지는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다.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전체 통치 영역을 확보한 팔레스타인 투쟁 거점 도시이며 상징적 도시가 되었다. 오늘날 가자 지구 안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 20개가 철수하므로 가자 지구는 완전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의 헬라시대에 가서야 블레셋 족속은 멸망당하게 된다. 로마 시대 도처에서 유대인의 반란이 잦아지자 로마는 이스라엘의 지명을 팔레스타인(Palestine)으로 바꾼다. 로마정부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지금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후손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눈을 돌려 다섯 도시를 보자. 다섯 도시 중 에그론(Ekron)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14Km쯤 떨어져있는 세펠라 가운데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에 놓아두었을 때 재앙들이 일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보냈던 곳이다. 오늘날 에그론 키브츠가 있는 곳에서 서남쪽으로 평지를 조금 지나면 목화밭이 있는데 이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곳에는 고대 에그론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기도 하다. 스바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슌2:4)

가드(Gath)는 술 짜는 틀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듯이 주변에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곳이다. 포도주 생산과 판매의 거점지역이었다. 골리앗의 고향이었던 것과 다윗의 부하 잇대의 고향이었으며, 전사들이 많이 출생한 것으로 미루어 가드는 장대한 거인 족의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된다. 다윗이 정복하여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었고(대상18:1) 르호보암이 후에 크게 도시를 키웠다.(대하11:5-10) 지금은 찾은 이가 없는 쓸쓸한 언덕에 불과하고 남아있는 유적도 없이 그저 지명으로서만 남아 그 옛날을 회상하게 한다.

아스돗(Ashdod)은 블레셋 도시 중 지중해 안에 접한 곳이었으며, 고대로부터 무역항과 어촌으로 발달한 곳이다. 다곤 신을 섬겼던 지역이었으며 블레셋 다섯 도시 중 종교적 중심 역할을 했으리라 본다. 신약 시대에는 ‘아소도’라 불리었다. 오늘날 아스돗은 이스라엘 무

역항 중 가장 발달한 항구도시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만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현대도시이다.

아쉬켈론(Ashkelon)도 지중해변의 항구도시로서 찬란한 헬라와 로마시대의 유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한 때는 블레셋의 강성한 도시국가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현대 이스라엘 도시로서 항구와 공업도시로서의 면목을 가지고 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아쉬켈론 해변에서 뉴에이지 축제가 벌어지는데 젊은이들이 5만 명 이상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가사(Gaza)는 오늘날 가자 지구로 혹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지역이다. “견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자는 견고한 아랍의 진을 형성하여 팔레스타인의 중심도시가 된 것이다. 이 도시는 노아 때부터 있었고(창10:19) 사사시대에 삼손의 마지막 죽음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신약시대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곳이기도 하다.(행 8:21-29)

(계속)



블레셋 지역의 모습

“할렐루야!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후 3:15)

나눔과 섬김의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예배 및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7년 11월 5일 주일 오후 3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교회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꼭 오셔서 축복된 시간에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 TEL.213-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성경 사용 설명서

이진섭 | 새물결플러스 | 470쪽

저자는 성경을 읽는 것을 '성경 묵상'이라 정의하면서, 그 묵상 방법이 여러라고 말한다. 개인 또는 그룹으로 묵상이 가능하므로, 큐티와 개인 성경공부, 큐티 나눔과 그룹 성경 공부, 설교와 강의 등으로 성경 묵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는 모든 방법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며 목회 현장에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영훈 | 교회성장연구소 | 322쪽

사람이라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질병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질병을 얻고 죄 가운데 죽어가지만, 치료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다.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우중학 | 새물결플러스 | 35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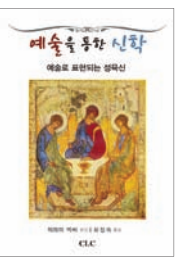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교수가 천문학자인 저자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보는 창조와 진화에 관해 말한다. 성경과 과학이 모순되는 관계가 아님을 설명하며 근본주의와 문자주의의 오류도 짚어낸다. 그가 바라는 것은 과학과 신학의 대화이다. 그는 과학이 신학과 성경의 적이 아니라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창조론 과학자나 무신론 과학자 모두가 한번쯤 읽어볼 만하다.



예술을 통한 신학

제레미 벅비 | 최정숙 역 | CLC | 264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여러 이해들을,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직 예술가, 목회자, 신학자들이 고민하며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보통 예술이라 하면 그림을 떠올리지만, 책에서는 문학, 시, 춤, 심지어 대중음악 분야를 통해서도 성육신의 의미를 조명하고 있다. 성육신이 주는 구체화된 메시지를, 예술 전 분야에 걸쳐 찾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터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삶의 구체적 영역에서 변증하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

라비 재커라이어스, 미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저술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라비 재커라이어스는 전작 <오직 예수>에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복음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전개했다. "내가 만든 신(gods)을 믿을 것인가? 나를 만드신 신(GOD)을 믿을 것인가?"라는 도전적인 질문에 독자들은 충분히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라비는 <오직 예수>에서 예수에 대한 몇 가지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변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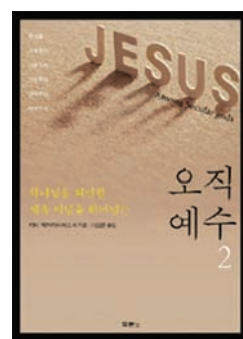
<오직 예수>를 읽어 본 독자라면, <오직 예수 2>를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다. 라비의 저술은 몇몇 출판

사에서 번역해 10권으로 세트로 묶어 판매할 정도로 우리에게 잘 소개돼 있다(갓피플).

라비의 글은 가볍고 경쾌해서 독자들이 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변증에서 매우 유익한 필력이다. 누구든지 라비의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 변증을 위한 지식, 능력, 지향성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에서 예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한 것에 이어, <오직 예수 2>에서는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다. <오직 예수 2>에서는 라비의 동역자인 빈스 비테일과 함께 사회 일반에 분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책은 사회에 만연한 무신론, 과학



오직 예수 2
라비 재커라이어스 하 두란노 | 356쪽

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를 지적하고, 세속적 사상에 대해 기독교적 변증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세속 이념을 뛰어넘을 유일한 진리로서 예수를 제시함으로써, 세속 변증사이지만 <오직 예수 2>라는 제목을 명명한 것 같다. 많은 세속의 주제를 논하지만, 결국 승리는 '예수'에 있다.

'창조과학'을 지향하는 공직자 후보가 사퇴하면서, 진화론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고조되었다. 창조과학은 비과학적인 수준으로 퇴락한 것으로 보일 정도다. 종교와 과학, 기독교가 세속에서 절대 진리 체계로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에스더와 같은 결단과 에스라와 같이 수많은 연구와 느헤미야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라비와 같은 효과적인 기독교 변

증 사역자를 보는 것 자체가 큰 유익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유명한 기독교 변증 사역자가 없는 것 같다. 학문적이면서도 쉽게 독자와 시청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활동가가 세워지길 기대한다. 이것이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 2>를 읽으면서 느낀 가장 큰 도전이다.

이 책을 번역하고 출판한 주제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책의 내용보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역자가 일어나길 기대했다. 라비의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와 교회에 효과적인 기독교 변증 사역자들이 세워지길 기대하게 됐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교(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권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213)381-7755 Fax.(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오프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업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베드로후서 읽으라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바른 가르침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려면

이 책은 베드로후서 주해서라고 볼 수 있다. 모두 5부로 나누었다. 목차는 본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글이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서론에서는 '교회 속의 세상'이란 제목으로 현대교회가 가진 난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한다.

1장은 '신적 성품과 해석'으로 1장 2-21절까지 다룬다. 본문에 해당하는 2장은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행실과 확정된 심판'에 대해, 3장은 종말론적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종말, 새 하늘의 새 땅'을 풀어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신적 성품의 성장'을 다룬다.

베드로후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 속의 세상'이다. 저자는 야고보서의 주제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 교회'로 보았다. 베드로후서는 사이에 낀 상태의 교회 속에, 세상의 정신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다. 베드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여 거기서 성장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궁급증이 생긴다. 베드로후서에 담긴 '세상'이 뭘까? 세속주의? 죄? 뭘까?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서론으로 들어간다. 오늘날 베드로후서는 잘 설교되지 않는다. 필자도 베드로후서로 설교한 기억이 없다. 순간 '왜 안했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저자 채영삼 교수의 판단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구호에 한국교회가 함몰되었기 때문에 본다. 야고보서와 베드로후서에는 소위 이신칭의가 분명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 바울 중심의 신학 탓에 공동서신은 소외됐던 것이 분명하다. 다시 질문을 돌아가자. 세상은 뭘까?

"베드로후서가 다루는 교회의 위기는, 무엇보다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부패한 삶의 악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윤리적 행위들은 교회를 깊이 병들게 하는 암적 요소들로 묘사된다(18쪽)."

그렇다. 세상은 거짓된 가르침과 그로 인해 기록하지 못하며 부패한 삶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 세상 속에 있으니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는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온 것 같다. 거짓 교사들이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장본인들이다. 베드로



신적 성품과 거짓 가르침
채영삼 | 이레서원
544쪽

후서 1장 1절은 '기초적이지만 결정적인 서론(23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구약 시몬에서 온)'이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반석)'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복음서는 거의 시몬으로 부른다. 시몬과 베드로가 함께 쓰인 것은 '자신이 원래 시몬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된 자신의 운명과 신분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칭호'인 셈이다(29쪽).

채영삼 교수는 '시몬 베드로'를 집요하게 묻고 늘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7-18)'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온다. 교회는 '내(예수)' 교회이다. 그러니 '음부(세상)의 권세'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화려하고 타락한 로마의 문명에 휘둘리는 교회들이다. 거짓 교사들은 헬라와 로마 문명의 영향을 받아,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현재에 몰입하는 쾌락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자의적 성경 해석'자이고, '영적 교만'에 빠진 이들로, '탐욕'에 사로잡혀있다. '방종'하며 '종말을 부인'하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멸적 존재들이다(43쪽).

2장에서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면서 유독 '자유'라는 단어를 집착하는 것을 발견한다. 왜 자유인가?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계명을 집으로 설명한다. 애써 지킬 필요 없다. 자유롭게 살아가라. 죽으면 끝이다. 하는 식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만연한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이 자유와 세속적 쾌락의 자유를 혼동 시켜 율법은 다 폐기되었으

니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가르침을 주었다(354쪽).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율법과 도덕 폐기론을 주장한 것이다.

만약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그러하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종말론적 삶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역시 3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거짓 교사들은 집요하게 종말의 심판을 부정한다.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자가 아래에서만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심자가 밖에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다. 가짜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은 수단 가지의 가짜를 배우지 않고 유일한 진짜 지폐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이처럼 거짓 교사들의 거짓을 타파하고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거짓 교사를 이기는 두 가지는 방법은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성경 해석학'을 소유하는 것이다(53쪽).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곧 '믿음(60쪽)'을 전제한다.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맞닥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여 자신의 왕국의 세우는 것이다. 그때 앞의 진수인 '향유'가 가능해진다. 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의(義)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림을 의미(62쪽)'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귀, 그리고 이것은 다시 성도와의 만남과 사귀으로 확장된다.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태풍에 쉬이 무너진다.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에도 견디지만 가뭄에도 쉽게 갈라지지 않는다. 교회는 말씀에 뿌리는 박아야 한다. 모든 판단과 척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영혼의 안식을 얻고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특히 베드로후서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에게 권하고 싶다.

정현욱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성경 충실한 모세오경 해설서 바른 성경 읽기를 위해

명료한 해석으로 쉽게 풀어쓴 해설서



Refo 500 성경해설: 모세오경
박우택 | 세움북스
460쪽

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다. 간략하게 말하면 한 축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고,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준다.

저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구속사'로 정의한다. 구속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구속사는 '성경 저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33쪽)'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함이 옳다고 말한다.

모세오경은 '구원 역사와 그 궁극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면과 거기에 따라 기초를 놓는 내용(67쪽)'이다. 즉 모세오경은 시작과 종말을 함께 담고 있다. 생명과 죽음도 있으며, 순종과 반역의 드라마도 있다. 토라와 율법, 개인과 공동체도 어우러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세오경은 '누구든지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합당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게 하려는 목적(76쪽)'을 갖는다.

한편, 어렵게도 저자는 모세오경을 바라보면서 불필요한 문서설에 집착한다. 실제로 모세오경의 저자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단적으로 모세의 죽음은 곧 모세가 모세오경의 완벽한 저자가 아님을 명백하게 증거한다. 차라리 문서설이 아닌 주경(註經, Exegesis) 입장에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모세오경을 점진적으로 해석해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굳이 논란이 많은 문서설에 관한 비평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됐을 것 같다.

이 책은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목회자와 일반 교인들이 설교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던가. '이 책은 쉽다.' 쉬움은 저자의 명료한 해석과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성경적 주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개요서이면서 종합서다. 성경통독을 원하는 새신자에게도 좋지만, 성경에 익숙한 목회자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정현욱 목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축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역명당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후원 음악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콘서트 콰이어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Concert Choir

찬조출연

지휘 **조혜정** 교수 반주 **차혜진**

카이로스 싱어즈 가금 **이정화** 스포라노 **최은원** 첼로 **박수정**

일시 : 2017년 11월 6일 (월), 저녁 7시 30분 **장소 : 남가주동신교회 본당**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 (714) 680-9556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골드**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환자, 반드시 아연 섭취해야!

프로지 골드

PRO-Z GOLD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팔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에게는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골드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 골드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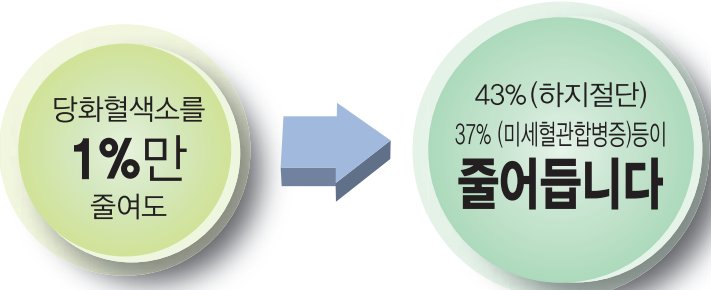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 43%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 UCLA대학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0+Tax
3병 \$170+Tax
6병 \$33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텔레마케터 모집
문의 : 949-864-9162